

한국운용과학회 申應均회장을 찾아

現代 社會는 組織으로 구성된 組織社會라고 할 수 있다. 社會가 발달하면 할수록 組織은 더욱 더 비대해지고 專門化되기 마련인데 이 복잡다기한 조직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또 조직 상호간에 엮갈리는 利害關係 등 전문조직간에 야기되는 문제들을 전체 시스템내에서 능률적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발달된 기법이 바로 Operations Research이다. Operations Research 즉 OR은 초기에 作戰研究에서부터 개발되어 企業 經營뿐만 아니라 政策樹立에까지 運用, 企劃, 經營의 意思決定科學으로서 현대사회 구성구석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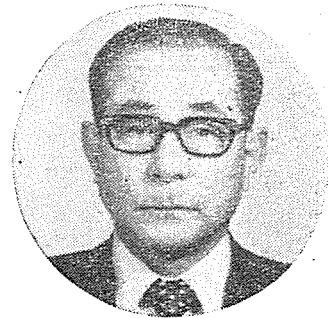
이렇듯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인 OR에 대한 認識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덜 되어 있지만 점차 OR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OR의 도입은 시급하리라고 본다.

「1980년대는 OR의 시대」라고까지 단언하는 韓國運用科學會 申應均會長으로부터 OR이란 무엇이며 그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알아보기로 한다.

■ 韓國運用科學會는 어떠한 목적으로 設立되었는지요?

먼저 학회가 설립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드려야겠군요. 1976년 6월 23일 KIST 강당에서 OR에 관계있는 100여명이 모여서 發起總會를 열고 학회명칭을 『韓國 OR學會』라고 정하고 회장에 申應均, 부회장에 羅雄培·金在官씨등으로 하는 임원진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체계를 갖추게 되었지요. 그해 10월 23일에 무역회관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12월에는 「OR학회지」 창간호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77년 4월 14일에 무역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法人體등록이 의결되면서 학회 명칭을 『한국 OR학회』에서 『韓國運用科學會』로 바꾸고 정관을 채택, 6월 28일에 과기처장관으로부터 社團法人의 認可를 받아 7월 20일에 서울지방법원에 등기를 함으로써 『한국운용과학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한편 우리학회의 설립목적이라고 한다면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



한국운용과학회
회장 : 신 응 균

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運用科學의 研究 및 應用을 촉진하고 국내의 관계기관과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으로 회원상호간의 학식을 넓히며 運用科學의 발전과 보급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 運用科學이란 어떠한 과학을 일컫는 것인지요?

저희 학회 定款 3조에 보면 運用科學이라고 할

■ 한국운용과학회

때에는 Operations Research(즉 運用研究, 運用分析 또는 作戰研究 등으로 번역)는 물론 Systems Analysis(體系分析, 시스템분석), Management Science(經營科學), Cybernetics(頭腦工學, 頭腦學) 및 이와 유사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가르친다고 되어있어요.

이렇게 볼 때 運用科學이라는 것은 상당히 범위가 넓은거죠.

■ OR은 언제부터 이용되어 왔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OR은 제 2차 세계대전 초기 영국공군에서 레이더의 효율적인 배치법의 문제와 관련된 작전연구를 통하여 개발이 되었습니다. 적의 잠수함으로부터 선단을 보호하려면 어떠한 규모로 선단의 형태를 어떻게 갖추어야 하느냐, 또 공중에서 적의 잠수함을 공격할 때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겠느냐하는 작전상의 문제를 결정하는데 종래에는 군인들만이 참여하던 것을 수학자라든가 물리학자 통계학자 등 과학자들을 작전 연구에 직접 참여시켜서 대단한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이 이 Operations Research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작전상의 문제에 군인만이 意思決定하던 것을 과학자가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군사상작전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그 시초라고 볼 수 있지요.

영국에 있어서의 작전연구의 성과가 미국에서도 주목거리가 되어 곧 OR은 미국에도 보급이 되었고 1950년대부터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특히 공군에서 이 OR에 관심을 갖게 되어 Project Rand가 발족되고 이것이 Rand Corporation으로 발전적인 탈바꿈을 하면서 군사문제 이외에도 경제학, 수학 등의 분야에서 OR의 여러가지 기법이 개발되어 큰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게 보급되면서 일반기업체 등에서 OR을 이용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세계각국에서 정채수립에까지 OR을 이용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그러면 OR의 특징이라면 어떠한 것을 들 수 있을까요?

OR의 특징은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회사경영에 있어서 회사라는 커다란 조직 밑에 각 파아트의 하부조직이 있는데 그 하부조직간 이해 관계가 엇갈릴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각부서의 장들은 자기가 맡은 부서의 실적을 올리려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전체시스템 안에서 하부시스템끼리 이해 관계가 엇갈릴 때 어느 방법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在庫管理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단일부품, 단순한 물건을 계속해서 대량으로 생산해 내는 것이 생산능률을 올리게 되는 바이지요. 가령 자동차 한가지만 보더라도 까만색 한가지만 생산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겠죠. 만약 빨강, 노랑, 파랑 등 여러가지로 한다면 벌써 어떤 색을 몇대로 할 것인가, 또 여기에 트럭이나 대형버스등을 첨가시킨다고 하면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러워지겠죠. 그러나 영업부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우선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여러 종류를 생산해 냈으면 하고, 그중에서 잘 팔리는 것은 수요를 늘리려고 하게 되죠. 한편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낸다고하면 종류도 많아지고 그중에서 팔리지 않는 것도 있을 테니 경리부 입장에서 본다면 비용을 들여 만들어 놓은 제품이 팔리지 않고 창고에 들어있으면 자금 회전이 안되므로 될 수 있는 한 재고를 줄이기를 원하게 되죠. 이 재고량 문제만해도 생산부와 경리부, 영업부가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는데 그밖에 각부서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은 한두가지가 아닐 겁니다.

이때 자동차회사라는 입장에서 볼 때 자동차를 몇 대를 생산하면 어떠한 색깔로 몇 대씩을 어느 시기에 생산해낼 것이냐 또 공급처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결

정해 주는 것이 바로 Operations Research의 역할이죠.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이 System Approach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문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해서 전체 시스템내에서 최적화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밖에 문제해결방식으로서 scientific approach가 있고 interdisciplinary approach가 있습니다.

interdisciplinary는 여러가지 학문분야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OR이 처음 시작될 때 군인과 과학자 심지어는 심리학자, 철학자가 모여서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때 interdisciplinary approach라고 하는 것도 OR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 OR은 OR學과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요?

OR을 意思決定科學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OR學이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OR에서 여러가지 model이라든지 해결방법같은 것이 학술적으로 불려나오기는 하지만 학문자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학자들은 학문이라고 하지만 OR은 그 자체가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달된 하나의 技法(technique)이기 때문에 학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技法으로 봐야겠지요. 그래서 제가 회장직을 맡으면서 학자들에게 운용과학회라는 것은 현실을 떠나서 academic한 것에만 치우친다면 의미가 없으므로 현실문제속에서 잘 조화시켜 나가자는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심포지움을 열 때도 될 수 있는 한 경영적인 측면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하는데 학자들측에서는 좀더 학술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길 바라죠. 그러나 우리 학회는 될 수 있는 한 현실적인 측면에서 기업이 원하고 있는 문제를 파고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OR은 학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技法, 즉 technique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 OR에는 어떠한 技法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技法들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OR의 技法은 그 종류도 많고 학자에 따라서 분류법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 가지만을 소개해 보면 우선 재고관리문제는 Simulation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재고는 장래에 발생할 수요에 대비한 유휴자원이므로 OR에서는 단순히 창고에 남아 있는 물건 이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재고관리의 응용으로 스튜어디스 양성을 들 수 있는데 젊은 여성을 原料로 보고, 養成한다는 것은 生産과정이고, 스튜어디스로 일할 수 있게 됐을 때를 제품의 완성으로 본다면, 한번에 너무 많은 수를 양성하거나 그 수가 너무 작은 때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Inventory theory는 적정재고방침, 적정주문량과 적정주문시간을 결정하는 기법으로 Simulation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OR기법중에 線型計劃法(Linear Programming)이 있는데 배분문제가 이에 속하게 됩니다. 배분문제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일과 자원이 1:1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은 하나 이상의 자원이 필요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하나의 자원을 두가지 이상의 작업에 배분한다 할 때 한정된 자원을 주어진 작업량에 어떻게 적절히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배분문제의 전형적인 예가 수송문제인데 미국의 「Heinz」라는 식품회사에서 해결한 實例를 들어보기도 하죠. 토마토케첩을 만드는 「Heinz」라는 식품회사는 미국동부의 「뉴저지」주에서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걸쳐서 美大陸을 횡단하여 산재하는 36개 공장을 가지고 그 제품을 전국에 분포된 약 70개의 창고에 분배 수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수송비가 가장 적게들도록 공장, 창고간의 수송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OR에 있어서의 線型計劃法을 채용하였더니 미숙련자라도 12시간내에 이 계획을 立案할 수 있어 종래 이 계획에 고생을 해온 상급직원의 부담이 가벼워지고 또 가장 적정한 계획이었음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 待機행렬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극장배표구열에서 표를 사기 위해 기다리는 행렬, 보수 또는 수리를 받기 위해 수선공앞에 쌓여있는 고장난 부품들, 부장책상위에 있는 미결함 서류들 등등의 대기 현상들을 확률적, 수식적으로 표시하고 분석해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이 바로 대기이론(Queuing Theory)입니다.

다음에 교통망, 통신망 등의 설계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네트워크理論(Network Theory)이 있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몇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할 때 어떤 순서로 임해야 가장 능률이 오를 수 있느냐 하는 순서짓기문제가 바로 이 이론의 대표적인 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계획도표를 가지고도 간단히 풀 수가 있는데 대규모의 건설공사, 연구개발계획 등에 이용되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CPM(Critical Path Method)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 밖에도 복잡하고도 큰 규모의 문제를 단순하면서도 소규모의 여러문제들로 쪼개어 답을 구하고 이런 解들의 연관성을 추적하여 原問題의 最適解를 구해나가는 기법인 다이나믹기법(dynamic technique), 판매전략, 외교전략 등의 수립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이론(game theory) 등 여러 기법이 있습니다.

■ **OR**이 초기 작전연구의 광목할만한 성장으로 점차 확대 보급되어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에도 이용되고 있는데, 이 **OR**이 실제로 어디에 응용되고 있으며, 과연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요.

기업체에서 OR방식을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먼저 生産在庫問題에의 응용을 들 수 있는데 생산계획의 수립, 최적주문량결정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 투자계획이나, 설비 문제에도 이용되는데, 설비문제에의 응용은 최적입지 선정, 시설규모 결정등에 응용될 수 있

습니다. 이밖에도 인사관리 연구개발문제 등에 OR이 유효하게 쓰이고 있지요.

기업경영에의 응용말고도 정부에서 공공문제 해결에 많이 쓰이고 있죠. 먼저 경제분석 및 경제개발에의 응용은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에 OR이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봅니다.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에도 응용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골치를 앓고있는 교통난 해소문제, 도시의 효율적인 지역설정과 상·하수도망의 설계등에 OR을 잘 이용한다면 쉽게 문제해결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정관리에도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OR은 실생활 전반에 다 적용이 된다고 봐야겠지요.

■ 그렇다면 **OR**은 기업경영이나, 정부의 정책 입안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용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문제해결을 할 때 꼭 어떤 model을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OR의 사고방식이 문제지요

그 좋은 예로 美國의 IFF라는 彼我識別裝置를 예로 들어보죠.

IFF(Identification of Friendly or Foe)장치는 비행기에 발사된 전파의 특징으로봐서 我軍機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장치로서 戰時 미국에서 비행기가 나타났을때 함대의 안전을 위해 미처 敵機인지 식별하기 전에 공격을 가할 경우 같은 아군이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행기마다 달도록 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IFF장치를 부착했는데도 계속 사고가 발생하자 전문가를 시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게 했어요. 전문가는 일주일 후에 돌아와서 분석결과를 보고했는데 그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했다는 거예요. 즉 비행기출격전에 「TURN ON IFF SWITCH」라는 표시를 한 나무판을 조종사에게 흔들여 보여줌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비행기조종사들이 IFF를 달고도 스위치를 켜지않고 비행을 했기 때문에 전파를 발사해도 아군기라는 표시가 오지 않으므로 적기인 줄 알고 사격을 가해서 그런 결과가 나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만으로 조종사들이 IFF스위치를 ON으로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일어난 사고라는 것을 일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技法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과학적인 思考方式으로 원인규명을 했다는 것이 되는 거죠.

■ 대학에서 OR을 강의하고 있는 학과는 어떠한 학과들이며 여기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강의되고 있는지요?

산업공학이나 경영학과, 수학과 등에서 강의하고 있지요. 여기서는 OR의 여러가지 技法들이 강의되는데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능률적, 효율적,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그러나 OR을 배운사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OR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과학적으로 두뇌를 쓸 수 있는 물리학자, 수학자 또는 사회과학자, 경영학자,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OR의 기법을 이용하여 문제해결을 하는데, 전자계산기에 넣어서 풀어야 할 문제는 OR을 전공한 사람이 정리를 할 것이고 최종결정은 어디까지나 전문분야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겠지요.

다시 말하면 OR은 意思決定을 가장 과학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는 意思決定科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 OR이 도입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Linear Programming, dynamic Programming game theory 등 OR의 기법을 이용한다기 보다 Systems Approach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고 부터 OR이 이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지요. 軍에서 말하는 Staff Study와 5.16이후 행정연구에 OR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1960년 후반부터는 육·해·공군 全軍이 다 OR Group을 갖고 있었으

며 미국에서 OR을 배워온 OR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 시작한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OR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경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지요. 이러한 내용은 개발도상국의 정책수립이라든지 또는 사업계획에 OR을 어떻게 이용했는가를 서술한 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나온 Systems Analysis and Operations Research(보통 ORSA로 불림)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South Korea National Economic Models를 예들들고 1967년부터 71년까지 수립된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이 OR기법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요. 그와함께 OR의 수법을 쓰지않고 수립한 경제개발계획이라는 것은 Political document에 지나지 않으므로 경제개발계획이라면 Operations Research나 Systems Analysis의 수법을 도입해서 세워야만 實効를 거둘 수 있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에 이 OR기법을 충분히 이용했기 때문에 100억불 수출 달성이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학회가 창설된 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죠.

■ 요즘 OR에 대해서 비교적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기업체 장들조차 OR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OR이 運用·企劃·經營의 意思決定에 있어서의 最適化의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실업가들에게는 아직 새로운 것으로서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OR이 기업경영에 얼마나 도움을 주게되며, 또 기업체 장들에게 경영합리화에 OR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겠지요. 그러한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이 바로 학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회가 커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업체에 도움도 줄 수 있으니까요.

■ 한국운동과학회

■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OR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습니까?

OR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몇몇 회사만이 OR 부서나 OR팀을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고 그밖에는 아직도 초보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전자계산기를 System化하고 있는 회사는 많지요 KIST의 Computer 단말을 갖고 있으면서 업무처리를 Computer化하고 있는 회사가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대해지는 기업조직을 이끌어 나가려면 Top management들의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OR이 필수적인 시대가 오리라고 봅니다.

■ 우리나라에서의 앞으로 OR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까지 우리는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기까지 技術革新을 이룩해 왔는데 다가오는 80년대부터는 經營革新을 단행할 때라고 봅니다. 이때 가장 유력한 무기가 OR이라고 할 수 있어요. 80년대 기업은 OR의 수법을 쓰지않고는 지속적인 성장유지가 어려울 뿐더러 어떻게보면 현상유지도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1980년대는 OR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거예요.

■ 그렇다면 운영과학회로서는 어떠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될 수 있는 한 많은 기업체가 특별회원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재정지원을 해주어야 학회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학회가 재정적으로 안정을 유지해야 연구에 주력할 수 있고 또 기업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학회의 학자들이 용역을 맡아서 해결할 수도 있지요. 반면에 기업체에서는 학회에서 갖는 심포지움에 적극 참여해서 활용해 주고 또 학회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간행물을 잘 소화해서 이용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해요.

그러니까 학회와 기업체가 유대관계를 맺어 OR이 많이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 이제까지 학회의 사업실적과 금년도의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창립된지 4개월만에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이듬해 4월에는 춘계심포지움을 실시했는데 이때 상공회의소 太完善회장께서 “80년대의 기업경영과 OR”이라는 기념사를 해주셨어요. 이런 관계로 해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동회회의소와 과학기술처의 도움을 받아 전주, 대구, 부산 등지에서 지방순회 심포지움을 실시했고 추계심포지움도 서울, 부산, 광주, 마산에서 순회강연을 갖는 등 그 동안 꽤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4월 20일에 「기업경영의 합리화」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심포지움을 열고 27일에 대구, 28일에 부산, 5월 3일에 광주, 9일에 인천 등지에서 지방순회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지방순회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시지요?

우리로서는 물론 운동과학을 인식시킬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라는 전지에서 볼 때 기업경영의 과학화를 일반인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을 기업의 성장이 가져온 결과라고 볼 때 기업이 성장되어야 경제가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科學化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럴려면 모든 공무처리가 전산화되고 思考方式도 OR적인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방향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기업체에 계몽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예요.

그러니까 운영과학회의 PR이나 존재여부를 알린다는 목적보다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특히 상공회의소가 관심과 흥미를 갖고 적극 지원을 해주므로 과거의 정보산업국과 연결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과거는 계획을 짜고 상공회의소는 회의장 준비와 사람들을 동원하고 우리는 가서 연구하는 문들을 강연하는 셈이지요.

■ 현재 회원은 몇명입니까?

특별회원이 1, 단체회원이 20개사, 개인회원이 약230명됩니다.

■ 외국학회와의 유대관계는 어떻게 맺고계신지요?

현재 우리학회는 IFOR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perational Research Society)를 통해서 각국 OR학회와 유대를 맺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외국전문가 몇분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 초대회장님으로서 학회를 운영해가시는데 포부라고할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在任期間동안(79년 4월까지) OR학회가 활동해 갈 수 있는 기초를 닦아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OR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바지하려고 합니다.

■ 우리 과학기술계에 바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현대가 과학기술시대라고 불리우는 시대인 만큼 선진과학기술에 뒤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하면서 뒤쫓아 가야 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층에 계신분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해야겠어요. 우리 과학자들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일반에게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겠지요.

■ 끝으로 저희 科總에 바라고 싶은 말씀은

새 회장님이 오셔서 대단히 활발한 단체가 될 줄 믿습니다. 민회장님께서 상당히 dynamic하고 활동하는 분이시니까 우리나라 과학기술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단체로 육성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學會育成을 위한 基金을 많이 조성하여 학회가 기초를 굳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연합회의 기관지 같은 것이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 “과학과기술”지 投稿案內 ■

- = 論 壇 = 가. 學術研究論壇: 産業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國內外의 最新 科學技術
나. 學術情報: 새로운 海外의 科學技術 情報 紹介
- = 固 定 欄 = 가. 科學春秋: 生活周邊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事例中 科學技術的인 側面에서 指導 및 改善이 必要한 內容을 骨字로 한 것.
나. 내가 본 世界第一: 筆者가 경험한 가운데 가장 理想的인 施設 및 運營方法 또는 존경할만한 人物의 研究態度 및 生活哲學의 紹介
- = 原稿枚數 = 가. 論壇 기타 原稿: 25枚內外(200字 圓고지)
나. 科學春秋: 6枚內外(200字 圓고지)
다. 내가 본 世界第一: 13枚內外(對象施設 및 人物의 스케치)
라. 寫眞: 1枚(명함판)
- = 其 他 = 外來語表記은 文敎部에서 指定한 표기법을 使用하고 도량형은 政府가 指定한 도량형法인 미터法으로 표기해야 함.